

발길 준 광주 금남지하상가 단전·명도소송...대책 시급

방문객 지속 감소...2021년 임대료 54% 인하에도 매출 ↓ 최근 관리비 장기 미납 5곳 전력 제한...2곳은 여전히 갭감

광주 최초 지하상가 '충금·금남'의 일부 영업장이 관리비를 장기 미납해 최근 단전 조치됐는가 하면,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는 곳들도 있어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한 처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십수년째 미납이 계속된 만큼 관리 주체인 광주도시공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충금·금남 지하상가의 운영권을 인수받아 현재 총 499개소 중 459개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나머지 40개소는 공실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이 중 11곳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11곳이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어서다. 임대차 계약은 최대 10년간 가능하고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이들 모두 계약 기간

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음은 물론, 부당이득금과 관리비(전기세 등 공공요금)를 장기미납하고 있다는 게 광주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소송 과정에서 4곳은 광주도시공사 측과 재계약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나머지 7곳 중 5곳에 대해 최근 '단전'이란 강수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10일부터 5일간 이어진 단전 조치 끝에 3곳은 최소한의 미납 관리비를 납부했다. 그러나 2곳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현재까지 단전이 유지되고 있다.

이 2곳이 미납한 관리비는 1억2천여 만원으로 지하상가 관리비 전체 미납액 2억4천여만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관리비 미납 상가는 총 97곳이다.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광주도시공사 측에 '충금·금남지하상가' 전체 단전을 예고했고 광주도시공사는 다수 영업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비 장기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곳의 전력 공급을 끊었다.



14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지하상가 1공구 일원. 한 시민이 문물연기계에서 옷을 본 뒤 나오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지하철역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성학기자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해 지난 2021년부터 임대료를 기존보다 54% 인하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방문객 감소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더 많은 영업장의 단전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영업장의 전력 공급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장기 미납 상가의 주인을 만나려고 해도 주소지가 뚜렷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된 돈도 거의 없다시피 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납금 납부와 관련해 추가적인 반응이 없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광주도시공사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장은 나뉘었으나, '남 일'이 아니라는 건 공통된 반응

이었다.

금남 지하상가에서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는 A(50대·여)씨는 "유동 인구가 줄어 평일에 손님을 보는 게 손에 꼽는 일이 됐다"며 "그나마 주말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조금은 있지만, 지하철을 타기 위한 승객이 대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미란 광주지하상가 상인회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가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동구청과 함께 국가사업 등에 응모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20억대 도박' 불법 홀덤편 운영자 등 무더기 검거

참가자 61명 등 73명 불구속 송치...부당 취득 금액 추정보전

홀덤편(카드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에서 도박 참가비 등을 받아 약 2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도박장 개설 혐의로 홀덤편 업주 A(40대)씨 등 운영자 12명을, 도박 혐의로 참가자 B씨 등 6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운영자들은 지난해 4월11일부터 같은 해 11월6일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홀덤편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 도박 참가비 등을 받아 판돈 2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 등 참가자들은 같은 기간 해당 가게에서 5차례 이상 도박 게임에 참여한 혐의다.

운영자들은 참가자로부터 15만~6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받고 텍사스홀덤이라는 이른바 카드게임을 하도록 한 뒤 테이블당 5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또한 도박 게임이 열리기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게임 시간과 내용 등을 홍보해 참가자들을 모았으며 경찰이 출동하면 승강기 전원을 끄거나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채 정산표·현금·상품권 등을 감춰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수사를 펼친 경찰은 도박 현장을 급습, 장비 등을 분석해 운영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손님 300여명 가운데 5차례 이상 상습 도박자 61명을 입건했다.

또한 홀덤편 운영자들의 개인 재산

등 5억1천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정보전하기로 했다.

/이육근기자

동구 한 초교서 '집단 식중독' 증세

광주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를 나섰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점심 식사 이후부터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16명이 설사,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학교는 즉시 전교생 1천82명과 교직원 100명을 조사해 유증상자로 보이는 학생 16명을 발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병원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동구보건소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장정민기자

"언론에 제보, 신고 포상금 해당사항 아냐"

광주고법, 제보자 청구 기각

언론 제보로 드러난 행정 비위가 바로 잡히도록 도운 공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필요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4일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구레군이 호우 복구비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구레군은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수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재해복구비 146억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다.

이후 모 방송사는 구레군이 재난폐기물이 아닌 생활·대형 폐기물을 처리

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접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조사에 나서 부적정 집행액 등 76억여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자신이 해당 보도의 제보자이고, 검찰에 보조금 유용 공무원들을 고발했다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언론보도를 보고 자체 조사에 나서 보조금을 환수한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레군이 생활·대형 폐기물을 재난 보조금으로 처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보한 것은 A씨가 아닌 구레군 소속 환경미화원(피고 보조금가인)이었고, 미화원들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도 먼저 했다"며 "A씨는 구레군 소속인 미화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대신 언론 인터뷰에 응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언론에 제보한 당사자

임을 인정하더라도 (언론 제보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인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재영기자

'대출 대가' 나체 사진 받은 20대 구속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담보로 받고 추가 금품 갈취 협박까지 일삼은 20대가 구속됐다.

14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연결된 10대 여학생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을 빌려주고 담보 성격으로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나체 사진이 유포 당하는 게 싫으면 돈을 더 달라는 등 협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영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